



즉시 배포용: 2018 년 7 월 2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당국에 지체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지시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8 주년을 기념하여, 뉴욕주 전역의 장애인 접근성을 증진한다는 다기관적 노력인 ‘에이블 뉴욕(Able New York)’ 어젠다 발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8 주년을 기념하여 ‘에이블 뉴욕(Able New York)’ 어젠다를 발족하였습니다. 해당 어젠다는 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기관 이니셔티브입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지체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들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서 이니셔티브 첫 단계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이 제정된 후 28 년 동안 뉴욕주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이들이 뉴욕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에이블 뉴욕 (Able New York)’ 어젠다는 기회를 확대하고 장벽을 낮추며,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모두를 위한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8 년 동안 미 장애인 법은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들을 위한 자원 및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블 뉴욕 (Able New York)’ 어젠다는 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이 뉴욕주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모든 뉴욕 주민의 기회와 평등을 보장합니다.”

오늘날 Cuomo 주지사의 지시와 ‘에이블 뉴욕 (Able New York)’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지체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인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에이블 뉴욕(Able New York)' 이니셔티브

보건부는 지체장애로 인해 당국의 지원을 받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기존 요건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단체를 위한 일련의 지침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에게 보내는 서신** 보건부는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주민에게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모든 요양 시설에 관리자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합니다.
- **긴급 지원 프로그램 관련 개정 지침 발행** 보건부는 현지 사회복지부에 개인 지원 서비스를 승인하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전달할 것입니다. 보건부는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준수하지 않는 카운티에 적극 개입할 것입니다.
- **MLTC Housing Disregard 에 관한 교육 제공** 보건부는 요양원, 성인 돌봄 시설, 지방 정부에 관리형 장기 치료 플랜(Managed Long Term Care, MLTC)의 MLTC Housing Disregard 에 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MLTC 에 가입한 요양원 거주자가 요양원을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경우 추가 주택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보건부는 요양원에 관한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정하여 지역사회 생활 옵션에 관한 교육 및 지원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보건부에서는 1 단계 종합 법안의 일환으로써 다음을 조사합니다.

- **요양원 인증 조건** 보건부는 메디케이드(Medicaid) 등록 요양원에 매년 다음 사항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a) 모든 요양원 거주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였다. b) 요양원 거주자에게 지역사회 복귀에 관한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c) 시설에서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게 퇴소할 수 있도록 거주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하고, 효과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였다.
- **요구 증명서(Certificate of Need, CON) 검토의 일환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 평가**
요구 보건부는 CON 과 함께 제출한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특수 요양원 침대 추가 또는 요양원 소유권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서비스 분야의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평가서와 해당 HCBS 서비스와의 현재 또는 향후 관련성에 관한 설명, 시설 입소 정책으로 어떻게 시설 거주자의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퇴소 권리에 관한 서신** 보건부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역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요양원 거주자, 거주자의 가족 및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퇴소 권리를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부는 요양원 거주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용 가능한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모든 요양원에 요구합니다. 보건부는 퇴소 옵션을 홍보하는 추가 방법을 모색하고, 장기 치료자 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에 참여합니다.

- **요양원 퇴소 인센티브** 보건부는 요양원 장기 거주자를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요양 시설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요양원 퇴소를 장려합니다. 퇴소한 주민은 최소 90 일 동안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합니다.

보건부(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 주민으로서 힘을 합쳐 미국 장애인 법의 중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이들이 뉴욕주에서 더욱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에이블 뉴욕 (Able New York)’ 어젠다는 주지사의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Health Across All Policies Initiative)’과 ‘고령자 친화적 뉴욕주(Age Friendly New York)’라는 다기관적 활동에 기반하며, 이는 모든 뉴욕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기관이 연대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ruce Darling 장애인 권리 센터(Center for Disability Rights, CDR)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DR은 25년 이상 탈시설화 이니셔티브에 헌신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의 첫 단계를 장애인 뉴욕 주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관리형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기금 조성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예산 프로세스와, 자택 요양 서비스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 사무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독립적인 삶에 대한 뉴욕 협회(New York Association on Independent Living, NYAIL)의 Lindsay Mill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삶에 대한 뉴욕 협회(New York Association on Independent Living) 네트워크는 장애인, 특히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독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매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립에 꼭 필요한 장애인 주택과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NYAIL은 미국 장애인 법 제정 28주년을 앞두고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이러한 중요한 행정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인 장애인 접근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될 권리는 장애인에게 있어 여전히 이루어야 할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독립 생활 위원회(Independent Living Council, ILC) 네트워크는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필요한 적시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Brad Williams 뉴욕주 독립 생활 위원회(NYS Independent Living Council)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삶의 선택지를 늘리고 모든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주지사님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Medicaid Matters의 **Lara Kassel**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 시설 거주자가 시설을 퇴소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니셔티브가 성공한다면, 메디케이드(Medicaid)는 장애가 있는 주민들이 요양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Medicaid Matters New York**은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를 고대합니다.”

‘에이블 뉴욕(Able New York)’ 어젠다

‘에이블 뉴욕(Able New York)’ 어젠다는 이미 뉴욕주를 장애인 권리 수호의 국가적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한 **Cuomo** 주지사의 성과에 기반합니다. 해당 성과에는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종합 계획인 [올름스테드 이행 계획\(Olmstead Implementation Plan\)](#), 뉴욕주 최초의 고용 이니셔티브(**New York Employment First Initiative**)를 마련하여 장애인 취업 기회를 늘린 [행정명령 136 호](#), 뉴욕 주민의 안전과 시민권을 수호하는 기관인 [특별 보호가 필요한 주민을 보호하는 사법 센터\(Justic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 창설 등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니셔티브는 모든 뉴욕 주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될 권리와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가 향후 발표할 일련의 활동 중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